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 인정은 없다. 아들이고 딸이고 이기고 본다. 평소 감정 있는대로 실어서 스매싱. 다른 건 다 저도 소시적 탁구장에서 익힌 실력에 적은 없다.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행함

9



2019

열 다섯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이달의 행함킹: 한상우목사 이런 목사님도 계시다

성감의 도가 뻘속까지 배었다는 말은 한상우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허드레 일은 말없이 다 해내신다. 좀 품 나는 일은 다 남의 것이다. 철저한 희생을 통한 성감,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런 스스로를 너무 모르신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목사님 앞에서만은 철저히 틀린 말이다. 자신을 몰라서 은혜로운 분.

큰 교회에서 목사님과 몇몇 우리 교인들이 초청을 받았다. 주로 목회자들이 초청 받은 자리다. 행사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식사 자리에 앉았다.

부러먹는 버릇없는 성도들로 볼까봐. 평소에 하도 교인들을 섬기셔서 우리가 스포일 된 것은 아닐지.

우리들도 앉았다. 그런데 한상우목사님이 보이지를 않는다. 잠시 후 목사님이 우리들 먹을 것을 받아 오셨다. 다른 테이블은 성도들이 주로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는 데 우리 테이블은 완전히 거꾸로다.



목사님은 무릎이 많이 앉졸으시다. 몸 살피지 않고 행하신 성감 때문도 적잖으리라는 것을 안다. 특히 나로 인한. 가끔씩 통증으로 다리를 저실 때 마음이 뜨끔뜨끔하다. 그 원인 중 어느 부분은 나를 업었기

때문임을 알기에. 살인 미소. 그 힘든 성감과 통증, 그런 것들도 목사님의 환한 미소를 한번도 빼앗아 간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사랑이 그 미소에 끊임없이 묻어 나온다.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4 백여명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을 위해 밥을 나르는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 밖에 없었다. 다른 목회자들을 평혜할 의도는 전혀 없다. 그게 상식이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이 별나실 뿐이다. 성감 킹이라 불러도 하나도 고개 저을 사람 없다. 근데 조금 걱정스러웠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면 저 교인들은 목사님을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이런 진도도 있다
K 양. 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그네에서
휴식하며 휴대폰으로
설교를 들었다. 백인
여성이 옆에 와서 함께
설교를 들었다. 끝날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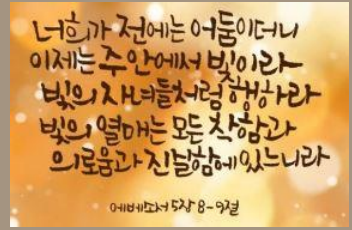
성경 필사

수잔.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녀에게는 잠언을 스스로
타이핑해서 예쁜 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달 넘게 타이핑하는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기어코 해냈다.

팁

여행 중 모텔 퇴실 할 때
남편이 \$40 를 놓는다.
아내는 너무 아까워서 남편
몰래 바꿔치기 하려다 내버려
둔다. 사는 것 넉넉치 않은
직원의 행복해 할 얼굴이
떠올라서.

오이 넝쿨이 옆집으로 담을 넘어 갔다.
그리고 탐스런 열매를 맺었다. 옆집
여성에게 따서 먹으라고 했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무척 좋아한다.
오이를 따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표정.



아, 찢러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설교 시간. 한상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신 있다고 생각해 기도 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해 나갑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요즘
내 실력만 믿고 교만하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찌그리 명확히 뚫고
계신지. 그래 기도가 먼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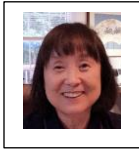
원손이 모르게 >>>

하나님의 은혜

강생목자 이야기(1)

우리 목자님은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영어도 아주 잘하지
못하는데도 버클리 대학을
나왔습니다.

-유인영기자-



거기다가 글도 잘 쓰고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아주 아름답게 부릅니다.
더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재능을 발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재능을 끄집어 내 같고 다듬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모든것을 내려놓고
월마트에서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목자님은 많은
VIP 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 내어 목장 예배때 목원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 중 세
분은 교회에 등록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두
분은 목장 모임에만 나오고 한 분은 계속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VIP 를 위해 살고있는
목자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해
동안 몸담고 일했던 월마트에서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화 시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말도 행함이 됨을

말보다는 행동. 참 그럴 듯한 말이다.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어서 입 다물고
조용히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정석처럼 박혀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석에는 틈이 있는 것.

과묵한 분이셨다. 가끔씩 만나면 그저 목례만 나눌 뿐, 만난
숫자로 계산해 보면 더 많은 대화가 오갈 법도 한데 항상
신중해 보이시는 인상대로 허튼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나름대로 참 좋아보였다. 좋은 일을 조용히 행하시는 그
자체가 트레이드 마크인대로...

그날은 아니셨다.
“선글래스 꼭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정계게 들릴 수가 없다. 그 짧은 말씀 안에는 마음
깊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읽혀졌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지만 이제 부터는 정겨운
말도 하나의 사랑의 행동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정말 말도 말 나름이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선글래스의 그 뻘하고 엄연한 사실을 최근
까마득히 잊고 조심성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 분은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서 사람은 나누며 살아야 되나보다. 누구나 부족하거나
모르거나 잊고 살아가게 마련이어서.



선교 소식: 과테말라 선교

아이들이 달라지니 정부서 성경을 가르쳐라

1990년대 후반 과테말라에 파송된 유광수·윤영숙 선교사는 과테말라시시에 인접한 비야누에바란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비야누에바는 최대 마약조직과 갱들의 주거지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이다. 유 선교사 부부는 2003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 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커리큘럼은 두 가지, 기도와 성경공부였다. 시간을 정해 함께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쳤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꿈도 희망도 없어 보였던 아이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칭찬 속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인근의 학교 교장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와 비결을 물었다. 유 선교사 부부는 “기도와 성경교육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학교들은 도덕이란 교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을 제안했다. 나중에는 문교부에서 23개 교육청에 속한 전국 공립 초중등학교 300만 명의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왔다.

현재는 과테말라시 내 200여 개 학교 15만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유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는 가르칠 수가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도덕 교과 내 가치관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주일학교가 부흥하니 부모들도 신앙을 갖게 되더라”며 “성경교육 사역이 결과적으로는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자정운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굿뉴스 데일리 제공]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신교지 한글데색을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

집 근처 아울렛에 들렀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계획에 없던 운동화를 두 켤레나 사게 되었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의 유혹에 넘어갔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임으로 새 운동화를 신어 보았다. 기대했던거 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해서 좋았다. 이렇게 좋지만 인간이 보고, 먹고, 만져서 느끼는 감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내면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은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하박국의 노래에 그 차이가 여실히 잘 나타나 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다. 커피 한잔의 기쁨은 잠시요, 운동화 한 켤레의 기쁨은 며칠이요, 십자가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성경교육 세미나 ©사진제공: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림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이달의 선교 기도제목

탄자니아: 조병훈선교사

목자: 노푸른

- 쿠르스 지역 전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이 세워지도록
- 초등학교 교육에 필요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잘 채워져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축복 >>>

-강수잔기자-



참 잘도 넘어간다. 아니 잘도 넘어가게 하신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인생 계급장으로 붙는 주름살을 돌리기 힘들 듯, 몸에 병이 나면 젊었을 때는 회복 되는 것들도 다시 돌리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최근 그런 환경에 몇번 처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솔직히 많았다. 이제 그럴 만한 나이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참 많다. 아직 우리집 상황이 주저 않아도 될만한 것들이 되지를 않아서.
회복이라는 것.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닌 수도 없이.
새 삶을 사는 느낌이다. 예상됐던 퇴행병들이었으면 나는 지금... 이번 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셨다.

왜 순종하여야 하는가?

신약교회의 모습은 평신도가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목회를 했던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교회가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책임자인 목자는 목장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평신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에 목자는 자신이 가정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원의 개인적인 상담이나 심방 그리고 축하 예배는 당연히 목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원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역시도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원들은 무슨 일이든 목자와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에게 기도 부탁등 알려야 할 내용이 있을 때에도 목자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목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임목사가 목원 개인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위로하거나 축하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도 그것은 목자님들이나 목장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편집 후에

놀이 먹는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보다. 그동안에는 내가 거의 쓰다시피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기자님들 써주시는 글들이 넘쳐 제작이 훨씬 수월해 졌다.

아직 디자인이 독특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우리 '행함' 디자인해 주실 봉사자 진정 없는 것인가.

매달 '행함'이 완성되면 카톡으로 수 없는 분들께 보내드린다. 행함을 받고 격려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살만 난다. 가끔씩 들어오는 채찍도 너무 감사하다.

꿈이 있다. 우리 '행함'이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정말 독자가 많아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고 우리 행함팀이 이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꿈이 너무 야무졌나?

다시 가을로 접어 든다. 영그는 계절, 행함도 영글어 가야지.

은혜공동체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후원
김복성
임재철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장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